

1989년 문익환 목사와 노무현 변호사의 접견

1. 대화: 문익환 목사, 노무현 변호사 (통일민주당 의원)
2. 일자: 1989년 6월 1일
3. 장소: 경기도 안양교도소
4. 분량: tape1. 01:04:13/ tape2. 00:22:51/ total 01:27:04

문익환 목사 접견1

녹음시간 : 01:04:13

노무현 : 제 권리로서 동네방네 **까지 불고 다닌답니다. 지금 그렇게 나오셔도 할 수 없어요.
공무원은 법률만 따르시면 됩니다.

교도관 : 근데 여태까지 사진이라든지 녹음한 예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무현 : 예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호사가 지금 접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도관 : 접견하는 건 인자 뭐

노무현 : 접견하고, 변호사는 접견하면서 적을 권리는 있고 녹음할 권리가 없다는 게 상식적으로 얘기가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교도관 : 법 이론에서는

노무현 : 제가 오늘 볼 때 분명하게

(녹음 끊김)

문익환 : 맨날 우리들의 체면을 봐 달라 하는 의견은, 그 얘기만 나오면 내가 빨따구 나는 거예요. 누가 누구의 체면을 봐줘! [호통]

교도관 : [웃음] 체면보다

노무현 : 선생님, 저 담배 좀 피겠습니다. 이 저 실례가 될 것 같은데, 피겠습니다. 목이 탑니다.

문익환 : 나도 하나 피웁시다.

노무현 : 예?

문익환 : 피울 줄은 몰라도.

노무현 : 담배 피십니까?

문익환 : 아니, 아니예요. 그냥, 친구들 따라서. 더군다나 이제 이... 혼자 피기 미안해하는 분 계시니까.

노무현 : [웃음] 아까 얘기를 어디까지 하셨습니까?

문익환 : 저 그게요, 사실은

스태프 : 반미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첫 번째 두 번째 (망치질 소리, 소음 심함)

문익환 : 그래가지고 두 번 (망치 소리)

노무현 : 저쪽이 시끄럽네요. 닫아버립시다. (문 닫는 소리)

문익환 : 참 어려운 얘기를 꼭 해야 되겠거든.

노무현 : 아, 맞습니다. 지금 두 번째 회담이 있게 된 경위.

문익환 : 북쪽에서 제가 해야 될 통일의 **(장비?), 그 이야기를 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인제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걸, 그 강조점을 인민에게로 옮기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내가 제안을 해요. ‘조금 더 강조점을 인민에게로 옮기십시오.’ 차마 이런 얘기는 내... 내가 ** 이 비서가 **하는 거야. 그러면서 ‘주석님, 문 목사님이 주체사상을 몰라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는 거야. 근데 김 주석은 그게 아니야. 진중하게 받아들여. 진중하게 받아들였어요. 확 개인 거야. ** ‘그렇죠. 주체사상이 인민에게서 오는 거죠.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러고는 비서에게 ‘사(4)월 일(1)일 내가 문 목사님 숙소로 답방을 가겠습니다. 시간 좀 정해 줘.’

노무현 : 아, 첫 번째 회담 말미에 이제, 말미에 그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문익환 : 그래서 한 번 더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김 주석이 이게 문제라. 얼마나 문제 있게 받아들였다. (광광 소리, 소음 심함) *** 많았어. 그래서 예정에 없던, 이(2)차 회담이 시작된 거죠. 이(2)차 회담에서 어, 그니까 일(1)차 회담에서 내가 가지고 갔던 문제를 다 얘기했거든. 갑자기 이(2)차 회담이 또 생겼어.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미군 철수 문제를 얘기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회담에서는 그 문제를 이제 제일 처음에 제기했어요, 미군 철수 문제. 그리고 그다음에 주체사상 얘기를 좀 더 진전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주체사상을 말씀드렸어요. ‘주체사상이 도대체 뭐니까? 뭐니까?’ 그랬더니 ‘*** 주체사상이 인민을 위한 길이다.’ *** (소음 심함, 잘 안들림) ‘근데 우리가 그것을 강조해야 하는 이유가 뭐가.’ ‘우리가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체사상이 민족주의인가요?’ 거기에 대한 응답은 내가 충분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그러나 긍정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사회주의도 민족 위해서 있는 거죠?’

노무현 : 네?

문익환 : 사회주의도 민족 위해서

노무현 : 아, 사회주의도 민족을 위해서. 예.

문익환 :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서 독립 운동할 때 자기가 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도

민족을 위한 것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 우리가 동료들에게 그러면서 사회주의자가 아니고 민족주의자라는 근거에 관한 얘기와(망치 소리 심함) 그리고 그 다음 점심식사 중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두 번 세 번 강조했는데 오스트리아 수석이 왔을 때 ‘나는 너희들이 정말 부러웠다’ 고 그리고 한 말은, 왜냐면 그 오스트리아 중립파들, 참 중립화에 대한 열의가 대단해요. *** 애긴가 하면 ** 근데 그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오스트리아는 중립과 통일할 때 사실 선거해서 공산주의가 참패를 하거든요.

노무현 : 예

문익환 : 그런데 ‘나는 너희들이 정말 부럽다.’

(망치 두드리는 소리 심함)

교도관 : 죄송합니다. 부탁드리면 **를 모시고 있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소장님하고 한 번 절충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노무현 : **습니까? 변호사가 피의자든 피고인이든 접견을 할 때 할 일이 뭐니까? 뭐 일 하는 겁니까?

교도관 : 제가 법리적인 면에 있어서는 뭐 말을

(녹음 끊김)

문익환 : 그럴싸한 핑계로 그 주체사상, 신문에 거기 내가 주체탑에서 방명록에 쓴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 가지고 내가 뭐 주체사상 찬양을 했다 뭐 이러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실 아랍 글자를 쓰거나 하면 내가 모르지만은 대강 영어나 독일어나 프랑스어를 쓴 건 내가 알잖아요? 나는 일본말로 쓴 거, 중국말로 쓴 거 다 알아요. 쪽 **났어요. ‘김일성이라는, 김일성 영도 하에 뭐 주체사상’ 안 쓴 사람이 없습니다.

노무현 : 예.

문익환 : 안 쓴 사람이 없어요. 나 하나가, 난 안 씁니다.

노무현 : 예. 모든 방명록에 ‘김일성 주석 영도 하에’

문익환 : 주체사상 뭐, 김일성 주체사상 이런

노무현 : 글귀가 돼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김일성 영도’ 라는 말을 쓰질 않았다는

문익환 : 안 썼습니다. ‘칠천만 겨레 백두에서 한라까지. 모두 모두 주인 되는 주체사상 만세.’ ** ** 꿈이에요.

노무현 : 선생님, 그것은 그 용어가 어떻든 간에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소위 그 뜻대로 표현하신 거란 말씀이지요?

문익환 : 그럼. 정말

노무현 : 진짜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사상에 따라 그것을 주체적으로 해석해서 방명록에 마, 하

고 사진도 찍고.

문익환 : 그림.

노무현 : ‘주체사상의 주체적 수용’ 뭐 이런 거 하나 만들면 되는가? [웃음]

문익환 : 하하하 [웃음]

노무현 : 참 저도 은근 참에 ‘주체사상의 중심을 인민에게로 이전하라.’ 이런 말씀 하셨다고 하는데

문익환 : 강조점을

노무현 : ‘강조점을 인민에게로 옮겨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 뜻은 결국 김일성 사상의, 말하자면 개인숭배라든지 하는 그런 색깔을 없애라.

문익환 : 없애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두 가지를, 시간이 없으니까. 개인숭배, 얘기했지만 통일에 중대한 걸림돌 **니까?

노무현 : 예, 걸림돌

문익환 : 그 얘기하고, 주체사상 참 둘인데. 둘을 하나로 묶어서, **이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질문한 거야.

노무현 : 예. 그다음에 아까 주한미군 말씀 하지 않습니까? 그럼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가 북한의

문익환 : 북쪽의 주장인데 최근에, ‘그 주장에 변동이 없습니까?’

노무현 : 저쪽에선 당연히 철수를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까?

문익환 : 글썄 말이에요? 그럼. 국회 *** ****. 그래서 내가 그렇게 ***. ‘미군의 단계적인 철수를 주장하라. 북쪽의 주장에, 입장에 변동이 없습니까?’ 그렇게 내가 물어봤다고. ‘변동이 없습니다.’ 그걸로 끝난 거야. 더 이상 얘기 안했어요.

노무현 : 예. (종이 넘기는 소리) 또 특별하게?

문익환 : 그죠. 근데 그... 참 미묘한 문제인데 김 주석이 한 얘기를 어느 정도 여기서 공개를 해야 되느냐, 하는 미묘한 문제가 있어요. 요거 조금 변호사님들이랑 같이 한번 좀 의논을 해 주셨으면 해요. 어느 정도 선에서 발표하는가.

노무현 : 예.

문익환 : 대개 이 얘기는 불리한 쪽에 있는데 지금 얘기는, 주체사상의 강조점은 ‘인민을 위해’ 라는 데 대해서 김 주석이 긍정적인 자세를 보였다 하는 거는 해도 괜찮아요. ** 그건 아까 설명한 거고. 내가 법정에 가서 얘기할 테니 아직은 알고만 계세요.

노무현 : 네.

문익환 : 그러나 국회의원들이나 변호사 쪽에서 이 얘기는 발표는 안 되더라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료로 쓰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노무현 : 예예.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제가 또 말씀을 좀 드릴까요? 우선 이제 여러 가지 선생님의 입장을 이해하는 입장에서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까 그 말씀하셨던 중에서... 어쨌든, 어쨌든 그 이쪽 그 ‘남한의 권력이, 정권이 선생님께서 무엇을 가서 얻어 오시든 간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뿐만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들에게 주면 냉큼 받을 것도 선생님에게 받아오시는 것은 못 받겠다. 따라서 오히려 그로 인해서, 뭐 바로 어떤 받아들일 수 있는 주장조차도 선생님이 받아오셨기 때문에 당분간 이게 채택되기 어려운, 대화의 통로가 막힌 결과가 된 것 아니냐’ 하는 이런 관점에서든 볼 수는 있거든요. 선생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인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은 정치인이 아니고 한 분의 양심 있는 신앙인이다.’ 라든지 또는 ‘시인적 정서를 가진 어떤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정확하든 안하든, 그런데 그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시인적 정서를 가진 분이 현실 정치의 아주 민감한 문제에 뛰어든 것은, 결국 좀 적절치 못했다’든지 ‘자기의 분수를 좀 넘어선 것이다.’ 이런 편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문익환 : 그래서 어제 경향신문에 *** ** 되었잖아요? *** ‘문 목사가 갔다 왔기 때문에 연합주의 체제가 나오면서 후퇴를 해서 국가연합을 **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내가 그래서 어젯밤에 ‘아 이거 합의를 안 하고 왔으면 좋을 뻔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거는 참 정부가 웅졸한 자세라고 국민들에게 규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그리고 내가 합의 성명**, 합의 사항** *하면서 우린 이것을 ***에 건의를 한다고 했잖아요?

노무현 : 예예.

문익환 : 우린 민간 차원의 합의인데 이것을 건의를 하니까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게 어, 문익환이가 받아왔기 때문에 후퇴를 한다 이거는 정말 그 이 민족적인 차원이 아닌가. 사사로운 감정으로, 국가 문제를 그릇되게 하는 엄청난 과오를 범하는 거다. 그것은 정말 역사에서 규탄을 받아야 된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노무현 : 정권의 입지를 위해서

문익환 : 그렇죠.

노무현 : 우리 민족을 배반하는, 얼마든지 배반할 수도 있고

문익환 : 그다음에 이제 민간 차원의 교류, 였더라면 남북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천구백구십오(1995)년까지 통일하자고 합의를 했고, 예?

노무현 : 예.

문익환 : 거기서 미군 철수를 주장하러 핵무기 철거를 주장하면서 합의했어요.

노무현 : 예.

문익환 : 근데 그때는 아무 말도 않고. 응? 이번에는 미군 철수 얘기도 없고, 핵무기 철거하는 얘기도 없잖아요? 아주 크게 무책임한 거야. 그리고 기독교 지도자들을 만나서 이것을 제안을 한다고, 건의를 한다고도 안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주 겸허하게 이걸 건의를 했어요. 정부가 할 일을 발등을 막은 것도 아니고, 몇 명 민간 차원에서 조통협이, 조평통이 민간 차원이냐 아니냐는 문제 가지고 당국에서도 실갱이를 많이 했고, 이 **** 실갱이를 많이 했어요. 북쪽에는 남쪽에 있는 것 같은 민간단체는 없다는 거 나도 알어. 그러나 일단 조직적으로는 그런 단체니까 그걸 상대를 하는 수밖에 없잖아.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이 민간 교류라고 하는 것이 정부나 국회 차원의 교류와 회담이 ***는 것이 아니고 그 기초 작업이다 하는 것, 이게 이제 내 소신이고. 이거는 사실은 적어도 북쪽에선, 문익환이라는 사람에게는 사심이 없다.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말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십(40) 년 동안 목표하던 게 이루어진 것 아니에요?

노무현 : 예. 결국 참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안 그래도 여쭙보고 싶었던 건데. 결국 중요한 두 가지의 합의, ‘새로운, 말하자면 북한의 자세가 바뀌게 됐다고 볼 상당한, 바뀌게 됐다. 상당한, 진전한 것이다.’ 라는 이런 두 가지의 성과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은 이제 누가 접촉해도 나올 것이냐 아니면 문 목사님의 방북에서 ‘만’ 얻을 수 있는 성과냐 이런 게 중요한 얘기겠죠.

문익환 : 글썄 그건 뭐 누구 당장 해도 할 수 있었을지는 모르죠. 그러나 지금까지 관 주도에서 얻어낸 게 뭐냐?

노무현 : 제가 여쭙보고 싶은 것은, 적어도 문 목사님은 누가 조금 그것은 지나친 자만이라고 비난을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그렇게 보신다면 그렇게 볼, 내가 주장할 수 있는 논거 같은 것 말이죠, 그런 것도 설명을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공식적이고 지금까지 서로 불신이 쌓여있는 공식적 기구 차원에서 아주 작은 미묘한 문제, 절차적 문제에서부터 신경전을 해 가면서 접촉하는 남북의 창구에서는 나올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말하자면 서로 마음을 열어놓고 활짝 열어놓은 데서 감정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부터 ** 되었다, 뭐 이런 것이 예 같거든요.

문익환 : 글썄 그거죠. 그게 이제 내가 마지막 결별 만찬에서 답사를 하면서 한 얘기에요. ‘정말 어, 기득권 유지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 민족 사랑하는 한마음이 있다면 이렇게 엄청난 것도 이렇게 이뤄질 수 있었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또 조사하는 쪽에서는 ‘그러면 북쪽도 다 그렇게, 그리고 남쪽 대한민국 정부만 뭐 그렇게 삭았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두 기득권자들이 모이면 그게 안 열린다. 그게 분단

사십(40) 년의 역사다.’

노무현 : 결국 우리가 그 분단의 비극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북한을 방문하신 건데, 같은 방문이라도 엄청난 박해를 각오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가는 데 서로의 신뢰의 기초가 쌓여지는 일면도 있겠죠.

문익환 : 내 사실 뭐 박해 같은 건 별로 *** 않았어요. [웃음]

노무현 : 아니, 상대가 볼 때, 상대가 볼 때 엄청난 박해를 감수하면서 온 사람에 대한 믿음, 이런 것이 이제 서로 마음을 열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이고. 또 그런 것이 바로 이 큰 변화를, 어떤 자기들의 의사를 결정하는 공식적 구조를 통하지 않고, 어쩌면 우리가 보는 절대적 권력자의 어떤 중대한 결심을 하게 하는 그런 계기로 이제 작용되는 것이고, 그런 분위기만이 이루어낼 수 있는 성과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누가 가도 얻어올 것이다.’ 는 이런 얘기는 옳지 않다는 말씀인...

문익환 : 글썄 그게 이제 그 기득권자들의 접촉, 사십(40) 년의 역사가, 아무것도 풀지 못한 게 그냥 증명을 하는 거죠.

노무현 : 지금도 또 그건 뭐 그런 눈치 보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거, 그 우리 (통일)민주당의 국회의원이긴 합니다만은 소위 정치군사회담 우선의 주장에서 동시병행, 다방면의 접촉을 병행한다는 이 주장에 대해서 뭐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 그것은 누가 어디서 이미 발표, 북한의 누가 어디서 이미 발표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신문에 간단하게 논평했는데 누가 발표했다는 거지?

스태프 : 그건 저희도 ...

노무현 : 그런 논평

문익환 : 아무튼 저 팔십삼(1983)년 저쪽에, ****에 있어서 **** 이것이 안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하는 교류는 분단의 고착화, 이건 일반론적이었고 또 이번에 김일성 주석도 강경하게 반대했잖아요 이것을 또. *** 했다가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내가. 두 가지 얘기 했는데 그거는 마이니치 신문이 잘 보도를 해줬더군. ‘남쪽의 민중 세력의 힘을 막을 수 없다. 고착화 **라도, 고착화시키려면은 긴장해야 되고 남북 교류가 되면 ** 밀고 들어간다. 여기까지 끌고 간다(?). 둘째는 이것이 정치군사 회담에까지 좋은 압력이 된다. 이것이’

노무현 : 예, 이제 대충 여러 가지 모해, 주로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 모해, 모함에 대해서 답답한 말씀 그러한 방면에 결국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다른 잡담도 좀 해보입시다. 우리 이제 일반 대중, 서민 대중들 사이에서 ***, 사이에서 이런 얘기들을 더러 하거든요.

(녹음 끊김)

노무현 : 그 ‘김일성이하고 확 끌어안는 거기서 완전히 잤다.’ 뭐 [웃음] 그런 것이 소위 이제 허위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이야기 거든요. ‘거기서 잤다’

문익환 : 근데 그 결과가 **이잖아요?

노무현 : 그 부분에 관해서 특별한 분위기 같은 거라든지, 그것이 또 자연스럽게 통할 수 있는 분위기라든지 그런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까?

문익환 : 막상 뭐, 아 바로 그 전날 밤에 이제 건국 사십(40)주년 기념... 기념** 하는 데가 있어요. **를 갔는데 김 주석이 외국 원수들하고 만나는 장면들이 잠깐 나오는데 그냥 만드시 세 번을 해요. ‘아, 이게 그냥 이 사람들의 방식이구나.’ 그래서 이제 했는데, 어 근데 카메라 한다는 **들이 얘기가 그래요. 그동안 많은 그런 사진들을 찍었었는데 그렇게 거의 허물어진 김 주석의 **, 그런 사진은 처음 찍었다는 거예요. 나는 ****가 하지만은, 김 주석을 만나서 이제 정말 허심탄회하게 민족 문제를 논하고. 차례가(?) 왔구나. 기뻐어요. 기뻐어요, 정말. 지금, 지금은 그거는 결과가 내가 간 게 아니고 저 쪽이 왔는데, 응? 그거는 뭐 [웃음]

노무현 : 그렇죠. 그것도 뭐 큰 어떤 의식, 그 걱정은 충분히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러한 방식의 인사라는 것이 일상적으로 있어온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 김일성 주석이 매우 허물어진 모습, 분위기 납득이 가네요. 이제 그다음에 황석영 씨 그 방북기행문 중에 부분적으로 대담해 놓은 거에 이제 요번에 신동아에 나왔는데,

문익환 : 뭐라고 했어요.

노무현 : 소개가 돼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우는 그 장면 같은 것 말이죠. 거기서 뭐... 그것도 조금 얘기가 있지이?

스태프 : 예.

문익환 : 뭐라고 했어, 황석영 씨

노무현 : 아닙니다. 그것도 이제 남한 신문에서 ‘어린아이들이 아주 쇼를 하고, 울고 쇼를 하니까 거기 가 가지고 끌어안고 같이 울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것도 좀 뼈간하게 써 놨지요? 근데 그 점에 관해서 황석영 씨는 그 상황을, 즉 설명을 해놓고는 있습니다.

문익환 : 뭐라고 했어요, 황석영 씨가?

노무현 : 그거는 그 상황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을 해놓고, **(우리에 대해서?) 조금도 선생님한테 뭐 해롭거나 이런 건 아닌데 선생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문익환 : 근데 나는, 사실은 저번엔 잠꼬대(‘잠꼬대 아닌 잠꼬대’)하는 장면을, 지금 여기 나와서 처음 실시간으로 ‘넋두리 아닌 넋두리’ 라는 그 책을, 보셨어요? ‘넋두리 아닌 넋두리’ 라는 내 시, 여기 나와서 쓴 창작시.

노무현 : 제가 그건 못 봤습니다.

문익환 : 그것도 못 봤어요?

노무현 : 예.

문익환 : 하아[한숨]. 이번에 떠나서 처음 온 것이 여기에 들어와서 울었어요. 아, 비행장에서 순옥이, 죽었던 여동생, 팔(8)촌이지만 우리 집에 같이 살았는데 그냥 부둥켜안고 우는데 내가 하나도 울지 않았어요. 하아, 그다음에 백기완 시인님, 너무 **는데 *** 나는 그래 서명 운동에 가서도 내가 눈물 한 방울 안 흘렸다고. 이렇게 참 내가 눈물이 많은 사람이거든? 시인이고 눈물이 많은 사람인데, 그렇게 냉철했다고. 그 *** 내가 울지를 않았다고요.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렸어요.

노무현 : 그렇게 보도된 건 아닌 것 같고 ‘아이들이 우는 것이 연극이다.’ 아마 이렇게.

문익환 : 글썸. 그러니까

(녹음 끊김)

(테잎 감는 소리 등, 소음 심함)

문익환 : 어쨌든 떠나시는 길 전에, ** 미리 말씀을 전했어야 됐는데. 고맙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었지만 *** 저도 떠날 때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됐는데, 드리지 못하고 ***,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노무현 : 오히려 저희 그, [기침] (통일)민주당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너무 무관심했달까. 냉담하게 했던 것이 오히려 더 문제였습니다.

문익환 : 아니 근데 저희, 사실은 평양에서 문성근(? , 32:58) 발언을 듣고, 역시 책임 있는 정치인이다. 그래서 그동안 상당히 가까이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 아주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33:20) 내가 했고. 그래서 동경에 와서 기자회견을 할 때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전혀 보도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 **(가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사실 드리고 싶었고. 근본이라고 하는 건 그... ‘모든 통일은 좋다.’ 고 하는 장준하 발언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통일에 좋은 걸로 해석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들, ** 분명히 있다고 난 생각을 해요. 때문에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그것을, 거기에 대해서 발언을 ** (34:09)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장준하가 그 말을 한 본의가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닌데 이제 말 그것만 떼 내고 보면 그렇게 해석도 될 수 있는 거다, 그런 거죠. 장준하가 그 말을 했을 때 고다음 문맥을 보면 ‘공산주의는 말할 것도 없고, 민주주의도 통일에 기여할 때만 의미가 있는 거다.’ 그런 얘기는 ** 북쪽 공산주의 체제도, 너희들이 공산주의 아무리 좋다 그러지만은, 통일에 기여해야 공산주의가 있는 거다. 그와 마찬가지로 남쪽에서도 너희가 민주주의를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 민주주의가 통일에 기여할 때만 의미 있는 거야. 그래

서 어떻게 보면 이런 지향을, 민주주의를 장준하 시인은 거기서 밝혔던 거고. 그리고 그 외에 장준하 씨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통일을 위한 민주화운동으로 일관하다가, **** **었잖아요(35:15)? 민주화를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에 이르기 위한 민주화라고 하는 것, 그게 이게 장준하 씨의 발언의 의도였고. 그렇게 민주화를 품는 통일 운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취하느냐, 하는데 가서는 그것은 어느 것도 좋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민주주의 체제라고 하는 것은 나라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른 거니까. 그 체제 자체는 그런 민주화를 통한 통일만 이루어진다면 그 체제 자체는 어떠한 것이든 선이다. 그게 이제 장준하 씨의 주장이라. 그것을 그 후에 나는 어떻게 발전을 시켰느냐 하면은 ‘통일을 지향하는 민주주의만이 이 땅에서는 민주주의라고 불릴 수 있는 거다.’ 라 하는 것이 그동안의 제 주장이었죠. 근데 이제 그러나 그 구절만 떼어내고 보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충분해서 그렇게 해석되는 발언을 한 데 대해서 김영삼 총재가 그런 그 비판적인 발언을 한 것은 아주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다 난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 점에서 지금 변함이 없어요. 그다음에 떠나시기 전에 참 뵙고 싶었던 분이, 이번에 소련에 가서서 소련 요인들하고도 만나고 하실 텐데. 내가 이번에 평양에 가서 보고 들은 것, 느낀 것, 확신하게 된 것들만 말씀을 드림으로써 소련에 가서 한국 문제를 논하는 데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었지. 말하자면 한국, 한반도 문제를 놓고 소련이나 중공에서 국가들의 시각을 조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가서 확인한 거는 북쪽이, 김일성 주석을 위시해서 국민들 전체가 김 주석 당대에 통일을 꼭 이룩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그 결의가 대단하다는 걸 발견했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에요. 그게 이제 내가 가지고 왔다는 것하고 아주 굉장히 들어맞은 거예요. ‘분단 오십(50) 년을 넘기지 맙시다. 분단 오십(50) 년을 넘기는 것은 민족적인 수치입니다.’ 그것이 그야말로 북쪽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도 완전히 들어맞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일단은 흔히 생각하는 거는 김일성이 가야 통일이 된다 하는 건데 저는 그게 아니라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 일이었어요. 김일성 주석이 간 다음에 누군가 권력을 완전히 지켜 가지고 통일에까지 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이 김일성 주석 당대에 통일을 안 하면 상당히 늦춰진다. 그게, 거기서 하나가 됨으로 해서 김일성 주석이 중대한 것을 나한테 두 가지 양보를 한 거예요. ‘북쪽에서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안을 관철시키는 거 부지하세월(不知何歲月)입니다.’ 이 한마디로 그냥 꺾어진 거예요. 이렇게 뒤에, 응? ‘북쪽에서 주장하는, 말하자면 군사외교까지 연방정부가 장악을 하는 그런 통일, 연방제 통일의 일정은 부지하세월입니다. 오(5) 년 안에는 안 됩니다. 그걸 하자고 하면 분단 오십(50) 년을 넘겨야 됩니다.’ 그 한마디로 그냥 바로, ‘유엔(UN)에 한 나라로 가입만 한다면, 이

게 ****쥬. 나머지 문제는 협상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해도 좋다.’ 그다음에…

(녹음 끊김)

문익환 : 정치군사회담으로 왔지 다른 *** 같이 할라고. 그것도 뭐 강하게 반대했지만 ‘그래야 정치군사회담도 빨리 됩니다.’ ***를 앉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주 지금 정부에서 할려는 거와 같은 *** (42:10)적인 정권이라도 만들고, 그 이름으로 유엔(UN)에 한 나라로 가입된다. ‘언제나 할 수 있는데?’ 그래요.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노무현 : UN에 한 나라로 가입을 한다는 거는, 거의 그거는 이제 북한의 지금까지 연방제 통일론이라는 것이 군사외교 등 상당히 실질적인 권한을 연방정부가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런 것이라면 부지하세월이다,라고 저희 문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거기에서 이제 김일성 주석이 꺾이었다, 이런 말씀이고. 그다음에 거기 가는 과정에 이르러서 정치군사회담을 저쪽에서는 계속 선행할 것을 주장해왔었죠?

문익환 : 그럼

노무현 : 선행하고, 했는데 그것을 계속 고집하는 한 또, 역시 접근의 길이 꽤 멀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니까 그래도 우리의 다른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회담을 먼저 ‘선행’ 해 가면서

문익환 : ‘동시에’

노무현 : 목사님께서도 ‘동시에’ 라고 말씀하셨

문익환 : 난 동시에. 정치군사회담은 시작한 거니까요. 이미 시작한 거니까 그와 동시에 다방면에 걸친 회담을 열고 교류를 진행해야죠.

노무현 : 바로 이거라. 저쪽에는 정치군사회담의 선행을 항상 주장했고, 그것이 해결 되고 다른 것들로 이렇게 얘기됐었는데, 다방면에 걸친 제(諸) 회담을 동시에 병행해 나가자는 것이 문 목사님 주장이었고 그것이 받아들여졌다는

문익환 : 그게 정치군사회담 가서도 ** ****다. 내 얘기했어요. *** 확 **더라고. 그러나 사실은 나는 민간 합의를 해 가지고 뭐 공동성명을 내고 그럴 생각은 전연 안하고 갔어요 나는. 그냥 그 길이나 튼다. 그냥

노무현 : 소득이 있으리라고 또 기대를 할 수도 없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문익환 : 타진이나 하고 온다 그런 건데. 너무 의외로 상당히 긍정적 합의를 했고.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이거는 공동성명으로써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 때문에, 어우 그럼 나는 뭐 사실 생각지도 안 될 것 같았는데 ‘좋다. 그럼 하자.’ 고 했는데, 사실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안하고 왔던 게 좋을 뻔했어요.

노무현 : 예?

문익환 : 안하고 왔다면 좋을 뻔했어요. 해고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 (45:18). 며칠은 ‘내가 안 하고 와야 되는 건데’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노무현 : 큰 성과라고 받아들이셨는데, 말하자면 이 성과를 문 목사님이 거두셨다는 이유 때문에 성과를 성과로써 인정하지 않으려는 권력의 성격을 미쳐 그것까진 생각을 못하셨다는. 성과니까 그냥 받아오면 이것이 큰 소득이라고 생각했는데 문 목사님이 이것을 받아오면 오히려 될 것도 안

문익환 : 안 된다.

노무현 : 더 방해할 수밖에 없는 이 권력의 성격을 미쳐 생각 못 하셨다, 그런 말씀이시죠?

문익환 : 그런 거죠. 정말 안타까운. [웃음]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팔일오(8.15) ** 회담하자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제안들 계속해서 자꾸 나오는데, 난 도와주지 않은 점도 있지 않은 그러나 내가 보기에 사실 나만 아는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자극적인 구체적인 *** (46:45) 저쪽에서도. 굉장히 적극성을 띄는 형편이었어요. 경제회담을 위시해서 *** (47:00-47:20) 그래서 남쪽 정부에 대한, 정부가 정말 통일을 원하느냐 하는 그런 불신이 있었는데, ** ***량은 된다 하는 침 나왔었어요.

노무현 :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는, 목사님 방북과 그 여러 가지 회담을 통해서 그 불신이 상당히 좀 불식됐다고 말씀하시는

문익환 : 그렇죠. 불식은, 불식됐다 그러면 아마 가능성이 훨씬 밝게 보여지는 거죠. 저는 그쪽에서는 내가 이렇게 그닥 썩 기대 안했던 거예요. 그냥 뭐 왔다간다, 그냥 정치적 이용을 한다 뭐 이런 거예요, 저쪽에서는.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동경에 들어가서 ‘나 공개로 들어갈 거야. 비공개로는 안 들어가.’ 정경모 그쪽에다가 알렸거든. ‘공개로 들어갈 거야’ 그쪽에서 당황한 거야. 내가 공개로 들어가리라고는 생각지도 않았던 거야.

노무현 : 처음 방북하실 때 말이죠?

문익환 :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 교섭할 때, 방북 교섭을 할 때

문익환 : 내가 정경모 씨가 북쪽에 갔다 올 때는 공개다 비공개다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비공개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내가 동경에 들어가는 길로 정경모에게 ‘나 공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린 거예요. 이십오(25) 일 날 비행기 가지고 나온 그쪽 사람이 비공개로 들어올 줄 알았는데 공개로 들어온다고 해서 부랴 부랴 지금 공개** 으로 했습니다.

교도관 : 의원님, 차 뭐 드시겠습니까?

노무현 : 고맙습니다. 제일 손쉬운 거 하나 주십시오.

문익환 : 난 여기 지금 보리차 있어요.

교도관 : 아니에요. 커피

문익환 : 커피 한 잔 주시면 더 좋고. (문 닫히는 소리) 그 뭐냐고 하면, 비공개로 들어오실 줄 알았는데 공개로 들어오신다고 그래서 우린 부랴부랴 공개** **습니다.

교도관 : 의원님 저, 녹음 하십니까?

노무현 : 예.

교도관 : 저희들이 이게 물론 변호사님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이런 문제라고도 해석이 되지만은 사진 촬영이라든가 녹음 이것은 여태까지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자 ** 좀 고려해 가지고 기록을 해 주시고, 조금만 좀.

노무현 : 그거는 피차 ** 긴 시간인데, 제가 그 이렇게 하입시다. 나는 녹취물이라고 뭐 대외적으로 돌리거나 하진 않고, 모든 것을 대화로 즉 받아 적은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서로 하십시다. 왜냐면,

교도관 : 근데 뭐 사정이

노무현 : 난 나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가 녹음했다.’ 라고 말해도 제가 적어가서, 말하자면 변호사들과 다른 변호사들도 많이 있고 이런 문제를 놓고 우리가 토론을 하고 또는 내가 물론 변호사로서 왔지만 제가 여기서 접견을 한 이상 ‘문 목사님의 입장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남들과 토론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그 말에 관해서 ‘야, 야, 이거 녹음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좋죠. 해도 상관이 없는 일이고. 그러나 다만 입장이 그러시고 선례가 없기 때문에 입장이 곤란하시다면, 적당하게 타협을 해서 서로 믿고. 그러면 저도 이것을 녹취라고 얘기하진 않고, 대답으로 내가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봅시다. 그렇게 하면

교도관 : 그런데에, 사실 저희들 심적 부담이...

노무현 : 그런 걸로는 이건 권리에 관한 문제

(녹음 끊김)

문익환 : 하지 맙시다.

노무현 : 이거요?

문익환 : 네.

노무현 : 아 이거 뭐. 볼 것 없이, 변호사가 대찬 변호사가 오면 어느 경우에도. 저는 뭐 싸우기 싫어서 그렇지 아무 문제없습니다.

문익환 : 그럼

노무현 : 아무 문제없어요. 제도적으로 한번

문익환 : 아니 그니까 **하시라는 거죠. 제도적으로도. 그래야 여기 일하는 사람들도 편해요, 여기 일하는 사람들. 변호사들이 이걸 권리를, 권리를 딱 세워주면 그러면 이 사람들은 관계가 없는 거죠.

노무현 : 이거는 옹호의 여지가 없습니다. 변호사가 오면, 거기 그라고 또 시국사건 같은 것 변론을 맡는 변호사들이면, 필요 여부의 문제이지 아무 문제없습니다. 조금도. 그건 뭐 관례로 확립할 필요조차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변호사가 아니면 이런 기회는 안 주어지는 거고, 변호사는 확립하든 안하든 약간의 관심과 의지만 그때의 필요에 따라서 가지면 이거는 완전히 관철할 수 있는 겁니다.

문익환 : 아니 그래서, 뭐냐 하면 법무부에서 교도소에 변호사가 하는 권한을 막지 말라고 하는 통지가 내려와요.

노무현 : 그것은 다른 차원에서, 그 부분은 많은 말썽이 있으니

문익환 : 오늘은 이렇게 하고. 그러나 저... 부당한 권리침해, 이거 안 되겠어요. 지금 내 관한 기사가 나면 전부 녹취를 하고 그러거든, 여기서. 지금까지 수사 과정에서는 내가 참았어요. 수사가 끝나고, 왜냐면 내가 날 방어해야 될 입장이고, 내 관한 기사를 내가 다 읽을 권한이 있고, 읽어야 되고. 이거는 막지 못 한다. 이제 오늘부터 그 투쟁을 하겠어요.

노무현 : 그동안에 스크랩 다 된 거 보내드릴까요?

문익환 : 좋죠 뭐.

노무현 : 그리고 우리 접견 요건 보니까, 문서를 편지를 보낼 수 있어. 편지를 보내고 보내드렸다고 연락드리고 하면 되고. 그동안에 변론에 필요한 여러 가지 스크랩이나, 신문 스크랩 같은 것을 죽 해 갖고 보내드리는 방법을 연구해뒀어요.

스태프 : 네

문익환 : 인제는 내가 날 방어해야 될 시점이니까,

노무현 : 물론입니다.

문익환 : 모든 걸 다 읽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노무현 : 제가 다른 거는 별 도움이 될 만한 게 없겠고, 신문 스크랩 부분은 제가 지금부터는 스크랩을 전부 새로 챙겨 가지고. 제가 좀 해냈거든요? 해냈는데 제가 한 건 부분적으로 일부 신문인데, 좀 우호적인 부분 신문을 스크랩을 해냈는데 오히려 욕 많이 해놓은 신문 스크랩을 좀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방어가 되겠지요. 그지?

스태프 : 예

노무현 : 비우호적인 그런 쪽, 신문을 죽 스크랩을 좀

문익환 :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이 *** ‘공식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착 성명서가 있

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비행기에서 그 도착 성명서 쓰느라고

노무현 : 이제 북경에서 평양 가는 비행기 안에서 말이죠?

문익환 : 그니까 그것도 그렇고, 허담 위원장이 나를 초청을 해놓고 이태리로 가 버렸거든. 그니까 나한테 예를 갖추지 못한 거야. 그런 것 전부가 그냥 비공식으로 들어가서 천천히 아무 때나 만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야. 그다음에 김일성 주석도 그때 저 이발전소 지휘하려고 가 있다가 내가 공개로 들어 온 것을 알고, 그러고는 이제 부랴부랴 평양으로 돌아와서 제 일(1)차 조평통 회의 하는 도중에 쪽지가 들어온 거예요. ‘내일 아침에 문 목사하고 단독 회담한다.’ 그니까 그쪽에서도 그냥 비공개로 들어왔다간 다른 많은 사람들 얘기하는데, 그런 것처럼 나도 그냥 비공개로 잠깐 들어왔다, 들어왔다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북쪽도. 근데 이제 내가 ‘아니야. 공개로 들어가’ 이제 그랬기 때문에 북쪽에서 사실은 당황을 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테 조사를 시켰는데 팔십삼(83) 년도에 양당제 최종안이 나오잖아요? 그때까지는 연방공화국을 ** 밀고 왔는데 팔십삼(83)년에 와서 그것을 완결 상태로 규정하죠. 그게 끝이다. 종착점이다, 남과 북을 둘 다 **한 지방자치제가 통일의 종착점이다, 그런 것을 주장하는데 그걸 전후해서 북쪽의 노동신문의 논조가 어떻게 바뀌어 가나. 그런 걸 좀 잘 살펴봤으면 ***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세 번 나오죠? 세 번 나오는데 그때그때 변화의 조짐 같은 것을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사실 놀랐어요. 이번에 북쪽에 가서. 지금 반미는 남쪽에 있지 북쪽에는 없어요.

노무현 : 네?

문익환 : 반미.

노무현 : 예.

문익환 : 반미 구호든지 무슨 그림이든지 그런 것, 어디 가서도 볼 수가 없었어요. 북쪽에서.

노무현 : 그렇습니까? 요즘 우리가 텔레비전에 북한 소개할 때 보면 뭐 미군 얼굴을 그려놓고 아이들이

문익환 : 그런 건 어디 가서 볼 수가 없어요.

노무현 : 그게 언제부터 그런

문익환 : 글썄 고걸 좀,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거기 가서 열흘 동안 노동신문을 읽었는데, 그 열흘 동안 노동신문에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도 못 봤다구요.

스태프 :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문 목사님께서 갔을 때 혹시 조작을 했다가 뭐, 테리비 뭐 그런 걸 일부러 안했다든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너무

문익환 : 그럴 수 있지. [웃음] 그리고 실지로 대화의 과정에서 미국 얘기가 **고 안 나와요,

열흘 동안에. 한번은 언제 나왔느냐고 하면, 내가 판문점으로 내려가기로 했어. 돌아올 때는 일본 *** 안 들르고 판문점으로 내려가기로 했어, 제 일(1) 차 회담 때. 근데 김 주석이 처음에는 ‘뭐 좋죠 뭐. 그렇게 하시죠.’ 그다음에 이제 다시 생각을 하고 자기들끼리 의논을 하고.

노무현 : ‘좋지요. 그렇게 하시죠.’ 하는 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문익환 : 판문점, 직접 서울로 돌아간다고

노무현 : 아 예, 직접 돌아오신다는 것, 네.

문익환 : 그러다가 이제 김 주석이 뭐라 그러는가 하니 ‘우리는 목사님을 미군에 넘겨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미군에 관한 언급입니다. 두 번째는, 제 일(1) 차 단독 회담 때는 내가 미군 철수 문제를 제기했어요. 사실은 단독 회담 한 번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한 번에 모든 얘기를 다 하는, 다 할라 그랬는데 미군 철수 문제만은 제기를 못 했어요. 빠뜨렸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생각 외로 두 번째 회담이 다시 열리게 되니까 제일 처음에 제기한 게 미군 철수 문제였어요. 내가 어떻게 제기했는고 하니 ‘미군의 단계적인 철수를 주장하는 북쪽의 주장에 변화가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변화가 없습니다.’ 그걸로 끝났습니다. 난 그게 (녹음 끊김) 그니까 미군 관계는 요 두 마디 밖에 없었어요.

스태프 : 김 주석하고?

문익환 : 예. 그리고 송한호 씨가 거기 적십자 회담 때 평양에 갔었던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그냥 미군 얘기 천지고, 미군 얘기 나오면 눈에서 불이 타다닥 났었던 것 같아요. 이걸 그게 아니야. 말하자면 결국 평화 통일이라는 것이 아주, 아주 확고하게 있었어요.

노무현 : 북한에 반미 얘기가 없다는 그런 것은, 그것을 인제 목사님께서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문익환 : 그니까 호전적인 것이 사라졌다.

노무현 : 아, 호전적인 분위기가 사라졌다.

문익환 : 그다음에 평화 통일이라고 하는 게 아주 확고하게 생겼어요.

노무현 : 그러니까 이제 증오의 대상을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증오감을 길러가는 부분은 이제 없어졌다는 거죠? 이 언제부터가 그랬는지는 한번 조사해 봐야겠네요.

문익환 : 없어졌어요. 그걸 조사해 보라구요.

노무현 : 혹시 팔십삼(1983) 년도에 연방제를 저쪽에서 최종안으로 확정할 때, 그 이전부터 아닌가 이제 짐작하신다는 말씀이죠?

문익환 : 짐작이.

노무현 : 얘기가 나왔으니 얘긴데, 첫 번째 단독 회담을 하셨을 때 거의 대부분의 얘기는 다 나

누셨다는 거고. 그 결론은 아까 말씀하신 것이고. 두 번째 만났을 때 문 목사님께서
문익환 : 어떻게 돼서 이, 북쪽에서도 이(2) 차 단독 회담은 계획에 없던 거예요.

노무현 : 예.

(교도관 목소리 나오면서 녹음 끝)

문익환 목사 접견2

녹음시간 : 00:22:51

문익환 : 떠나는 날 아침에, 떠나는 날 아침에 부벽루 돌담을 짚고 대동강 내려다보면서 처음으로 시인의 시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시 보셨어요? 신문에 났는데. 그게 이제 ‘오십삼(53) 년 만에 찾아 온 평양. 부벽루 돌담을 짚고 **한 대동강물 맑기만 한데 나는 시상이 떠오르지 않는다.’

노무현 : 그래서 이렇게 쓰셨군요.

문익환 : ‘감았던 눈을 살그머니 뜨니/ 까치가 등지를 튼 이름 모를 나무/ *** **는 환히 밝아 오고.’ 시적인, 감성적인 게 완전히 나한테는 없었어요. 그때야, 인제 간다고 하니까 비로소, 그 장면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난 지금 하루 종일 그걸 읽어보고 싶은데. 왜냐하면 내가 그 연극을 중단을 시켰거든. ‘이 편지는 우편을 부쳐도 배달이 안 돼.’ 그니까 ‘왜 그렇지?’ 그러면 ‘이 편지는 광주에 계신 할아버지한테 가는 편지야.’ 그래서 내가 그 연극에 뛰어들은 거예요. ‘그 편지 나 줘. 내 광주 너희 할아버지한테 갖다 전해줄게.’ 이걸 대본에 없는 얘기예요. 응? 그리고 ‘너희들 할아버지 품에 안기는 세상 만들어 줄려고 내가 왔어.’ 그랬더니 울음을 터뜨린 거야, 아이들.

노무현 : 아이들이 연극으로 운 것이 아니고

문익환 : 아니에요.

노무현 : 선생님이 울려버렸구만요.

문익환 : 내가 울린 거예요. 그렇게 조그만한 애들이 눈물을 ping ping 쏟으면서 우는 거야. 그래서 그래도 나는 거기서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렸다는... 예, 그때 광경입니다. 그래서 조사 받는 사람들이 ‘그걸 학교의 아이들한테 이걸 연극으로 시킨 거냐?’ 그래서 ‘연극으로 시켰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분단 문제를 이렇게 놓고 통일을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ping ping 울도록 교육시켰다.’ 이거야. 그쪽의 통일 교육이 얼마나 철저한 거냐고, 알 수 있지 않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연극이었다고 하더라도.

노무현 : [웃음]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찬양했다고 해서 [웃음].

문익환 : 난 고무 찬양, 난 저 그 검사 분이. ‘아 그럼 남쪽은 북쪽을 고무 찬양해야 되고 북

쪽은 남쪽을 고무 찬양해야 통일이 빨리 오는 것 아니야? 난 그 고무 찬양했다는 말 개의하지 않아.’ 그랬더니 그대로 씩디다, 검사가. 그리고 뭐 북쪽을 이롭게 했다? 난 칠천만 이롭게 하려고 한 생각이니까 북쪽도 이로워야지 뭐. 그렇지 않아요? 북쪽을 불리하게 하면서, 통일은 없어. 이 적대 국가 사이에서도 상대방에게 이점을 주면서 협상을 하는 거지, 상대방을 전적으로 불리하게 하면서 협상이란 있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노무현 : 아까 참... 한 게 그, 제가 이제 또 뭐 무슨 신문 기사, 기자 질문처럼 돼 버렸는데. 아까 김 주석이 생전에, 김 주석의 생전에 통일을 해야 된다.

문익환 : 생전이라는 것보담 그 이 참

노무현 : 제가 보기에는 통일의, 김 주석의 통일의 결의가 대단하다고 느꼈다 이렇게

문익환 : 아니 저, 당대에 하고 싶은 거예요.

노무현 : 당대.

문익환 : 그거는 첫 조평통 회의 때 내가 ‘아무튼 분단 오십(50)년 은 넘기지 맙시다. 분단 오십(50) 년을 넘기는 것은 민족적인 치욕입니다.’ 했더니 정준기가 ‘정말 좋습니다. 우리도 김 주석, 아니 위대한 수령 김일성 주석 당대에 통일을 하는 게 소원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

노무현 : 이제 그렇게 대단하다, 대단하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렇게 느꼈다 라고

문익환 : 느꼈어요.

노무현 :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

문익환 : 아니 저 이제 그

노무현 : 말로만은 받을 수 없는 거고, 이제 그렇게 확신하고, 느낌으로 또 확신하고 지금 계신 것처럼 그래 말씀을 하셨는데, 그쪽에 말하자면 통일에 대한 열의가 대단하다.

문익환 : 그렇죠. 그건 뭐

노무현 : 확신을 가지고 이제 계신 것으로 그렇게 전 듣고 있거든요. 근데 고것이 이제 그 모임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것 하고, 또 아까 소위 반미에 관한 구호 같은 것이 싹 없어졌다는 것, 뭐 요런 것으로 그런 판단을 내리신 자료로 느껴지는데. 그것 말고도 말하자면 그렇게 느끼게 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객관적인 상황이나 사실 같은 것.

문익환 : 그것 말고 예를 들어 말하면, 말하자면 저 이 무력 통일을 포기했다는 것, 진남포 막은 서해갑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로 지어지는데, 제일 중요한 게 거기 물이 평안남도 황해남북도 전역에 관개수가 돼 있어요. 그게 깨지면 삼(3)도 농사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 **군인이 다 가지고 있는데, 한 방에 깨져요. 그럼 삼

(3)도가 농사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뭘니까. 이걸 가지고 **, 이걸 이걸 깨지고 삼 (3)도 농사 안 되는 것을 각오하지 않고는 전쟁을 못 일으키죠. 그다음에 거기 순천 비날론 공장, 그건 ***라도. 정말 북쪽의 공원들 전력을 투입을 하고 있어요. 그게 평화 생산, 평화 ** 옷감, 비료, 사료 등등 이런 것 공장인데 석탄을 원료로 쓰고 있어요. 북쪽의 석탄은 아주 ****. 근데 그게 다 지상에 노출돼 있잖아요. 비행기가 와서 그냥 한번만 폭격하면 그냥 재가 돼요. 물론 이제 국제 관계도 있고 소련이나 중공이 저러는 건데, 군사 지원이 없이 남침은 불가능합니다. 무력 침공, 무력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끗이 포기했다. 그다음에 그러면 남조선 혁명, 아 그건 남쪽에서 할 일이지. 우리가 잘 하면 혁명 안 일어나는 것 아니요? 그리고 그것도 일단은 저쪽에서 포기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연방제는 실지로 남북 위의 그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 같이 해가는 거 아니겠어요.

노무현 : 이제 자기들이 표방하는 입장과 실질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문익환 : 다를 수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이유. 그거는, 근데 그 문제는 난 *** **어 거기에 대해서.(8:55) 그거는 **서 갈 수도 있어. 남쪽이 정말 민주주의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 혁명적인 사태를 보면 그쪽에서도 그런 생각 가질 수도 있지. 문제는 이쪽이다.

노무현 : 말하자면 그러나 지금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적극적인 공작을 하는 것 같진 않다. 그런 거지요.

문익환 : 그런 거지요.

노무현 : 뭐 그런 것으로 기초해서 판단하신다는 말씀이죠. 이제 전쟁을 싫어한다는 거하고, 무력 포기했다는 것과 통일을 열망한다는 것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문익환 : 통일을 무력 통일이 아니고, 남조선의 혁명 통일도 아니고, 정치 협상을 통한 연방제 통일이다. 정치 협상이라고 할 때는 현재로서는 연방제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노무현 : 아까 이제 소위 주체사상 얘기가 나왔을 때도 민족주의적 분위기를 느끼시게 됐고, 그런 것 저런 것이 이제 통일 열망하고 있는 근거이고. 아까 그 누가 말했다는 건지 내가 지금 얼른 기억이 안 나는데 ‘당대에 통일이 안 되면 상당히 늦어진다.’

문익환 : 아, 그건 내 판단.

노무현 :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쪽에서도 공감하고?

문익환 : 아니 그쪽에 가서는 그 얘기는 안하고, 그냥 왔죠. 그건 내 판단이고. 거기 가서는 다만 ‘분단 오십(50) 년은 넘기지 맙시다. 분단 오십(50) 년 넘기는 것은 민족적인 치욕입니다.’

노무현 : 저쪽에서도 ‘당대 통일이 안 되면 상당히 늦어진다.’ 이런 말 나온 건 없었고?

문익환 :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노무현 : 문 목사님 말씀하신 것도 없고. 다만, 문 목사님이 그냥 가시기 전에 가지고 있는 판단입니까? 이 와(왜) 그렇습니까?

문익환 : 판단이었습니다. 예?

노무현 : 이걸 왜 그렇습니까?

문익환 : 그 사람들은, 이게 왜 이 생각을 했느냐 하면 중공 쪽에서 넘어오는 사람들 가운데 중공 쪽에선 그런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김일성의 주체사상 때문에 통일이 안 된다, 김일성이 살아있는 동안은 통일이 안 된다’ 이런 판단들이 많이 있거든?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라고 느낀 거예요. 그게 아니다. 김 주석 당대 통일해야지 빨리 된다. 요것까지는 우리 둘 사이에. 내 판단은 뭐냐면은 김 주석이 권좌에서 물러난 다음에 스탈린이나 모택동처럼 격하돼 버리면 어쩌나. 격하되지 않는 길은 어떤 형식이든지 통일을 이룩해놓은 지도자로서 권좌에서 물러나야 길이 역사에 남는다. 그걸 저 사람이 원할 거다. 이게 내 판단이에요. 저 사람이 반드시 그걸 원할 거다. 근데 그 얘기는 안하는 거죠 내가. 그런 개인적인 그 ** 같은 거, 희망 같은 것은 ***. 그런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었고. 마침 기독교, 남북 기독교회에서 천구백구십오(1995) 년을 ‘통일의 희년’ 으로 삼았다는 거기서 그 둘이 나한테 힌트를 줬어요. 그래서 ‘분단 오십(50) 년은 넘기지 마시다. 분단 오십(50) 년을 넘기면 민족적인 치욕입니다.’ 그랬더니 그 정준기 위원장이 ‘참 좋습니다. 우리도 김 주석 당대’, 당대라는 말을 썼어요. ‘당대에 통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김 주석과 그동안 회담 하면서 김 주석이 날 뭐라고 그런 합의를 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그냥 합의한 게 아니고, 반대 놓는 일 퍼다가 합의를 해 줘니까? 그것은 ‘아 이렇게 해야 정말 분단 오십(50) 년을 안 넘기고 통일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해줄 수 있었다. 그런 거의... 확신이죠.

노무현 : 매우 그 정치적인 판단 매우 날카로우십니다.[웃음] 비정치인인데도. 조사를 받고 이르는 동안에 큰 불편은 없으셨습니까?

문익환 : 불편 이런 거는 없고, 익숙해 있어서. 근데 제일 불편은 뭐냐면은 내가 워낙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고생을 하는데 마침 유원호 씨가 세밀한 메모를 해줬고 증거 자료들도 거기서 ***요. 그게 하나도 불리하지 않았습시다. 참 좋았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걸 그대로 뒷받침하는 자료만 전부 나왔거든? 그래서 참 좋았고, 답에 유원호 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 유원호 씨가 **** 정말 알미운 녀석들 ****(14:30). 유원호 씨가 들어올 때 나보고 그랬거든. ‘목사님, 변호사 관련해서는 제가 걱정을 안 할랍니다.’ ‘알겠어’ 그래서 이제 한(승헌) 변호사가 그때 중부서로 왔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변호사님들, 유원호 씨도 같이 변호해 주셔야 돼요.’ 들어왔는데, 들어가서

‘유원호 씨, 변호사 문제는 내가 책임집니다.’ 그랬어. 그니까 ‘걱정 마십시오. 유원호 씨는 지금 고모부가 변호사가 있어서 다 해 주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유원호 씨 친필 좀 가져와. 그래야 내가 믿겠어.’

노무현 : ‘공모부’ 라니요?

문익환 : 고모부.

노무현 : 아 고모부. 예예.

문익환 : 아 근데 안 갖다 주고 ‘아 거 유원호 씨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할 테니까 염려 마십시오.’ 근데 전날 만났거든요. 대질하는 날 만났거든요. ‘고모부 변호사를 쫓아?’ ‘아니오. 없는데요.’ 그냥 내가 다 해줄 걸 믿고 있었던 거예요. 참 정말 나쁜 놈들이예요. 아 사실 유원호 씨는 사업 관계도 있고 또 사실은 내가 유원호 씨를 잘 모르잖아요. 정경모는 오랜 친구니까 믿지. 정경모 씨를 통해서 올 때는 일단 믿긴 믿었지. 그래도 사실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도 사업하는 사람이 **. ‘가지 마라.’ 그냥 가, 그냥 가는 거야. ‘그럼 카메라에 잡히지 말어!’

노무현 : [웃음]

문익환 : 근데 그냥 딱 옆에서 카메라에 잡힌다고요. 그걸 보고는 내가 안심했어요. ‘공작원은 아니구나.’ 공작원일 거 같으면 짝 하고 빠지는 건데, 빠지지 않고 카메라에 잡히지 말라는데 카메라에 와서 딱딱 잡히고. 그러고 이제 마지막에 나올 때, *** (16:50). 나 혼자 들어가서 답했어요. *** (16:55) ‘안 되겠다. 그럼 내가 진짜 공작원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러고 ‘그러면 문 목사님한테도 대단히 불리합니다. 같이 들어가서 같이 나와야 됩니다.’

노무현 : 그분 굳이 방북하고

문익환 : 네?

노무현 : 또 굳이 북한을 가고 또 같이 거까지 돌아오고 이랬는데 그분 뜻은?

문익환 : 조금 그 인간적인 그 좀 공명심 같은 게 있었어요. 있었다. ‘이 역사적인 걸음에 나도 동참한다.’ 이런 공명심이 있었어요.

노무현 : 선생은 공명심이라 하더라도 나무랄 수 없는 공명심입니다. 그 누구라도 한번 동참해 보고 싶은, 그니까 제, 문 목사님 가시기 전에 ‘참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 들기도 했었으니까요. 남은 맞아죽어도 이럴 때 같이 한번 갔다 오면 그런 게 사실은 공명심 아니겠습니까? [웃음]

문익환 : [웃음] 이 양반이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에 ‘아닙니다. 제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보고 백(100) 프로 믿었어요. ‘아, 이 사람 정말 백(100) 프로 믿을 사람이구나.’

노무현 : 공명심이라고 욕하기엔 그건 너무 큰 대가를 스스로 각오하고 왔다는, 하도 정서적인, 뭐랄까 통일에 대한 열망이랄까, 양심이랄까 그런 거거든요.

문익환 : 그렇지. 아 그리고 내가 저기 조사 끝나고 기소되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동안에 사실 변호인단에서 한 변호사한테 했던 얘긴데 그냥 해 가지고 같이 알리시면 좋겠어요.

노무현 : 예. 제가 죽 다 메모한 걸로.

문익환 : 아니 내가 불러드릴게요. (종이 넘기는 소리) ‘국민들에게 드리는 글, 법정에 설 날을 기다리며’

교도관 : 이걸 저희들, (협조)해 주시죠.

노무현 : 그러지 마십시오.

교도관 : 저희들도 어려우니까 그렇습니다.

노무현 : 그냥 말씀하십시오. 내 저 입장 곤란하게 하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문익환 : 안 한데 왜 자꾸 그래요!

노무현 : 법 따지면 법대로 합시다. 이걸 변론의 한 과정입니다.

문익환 : ‘저는 우리 민족의’

교도관 : 녹음기는 끄고 해 주십시오.

문익환 : ‘모든 문제의 근원은 분단에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분단의 극복 없이는 어떤 문제가 제대로 풀릴 수 없다는 확신으로 살아왔습니다.(받아적는 소리) 모든 문제의 해결은’

교도관 : *****

문익환 : 갈 때 뺏으라고! 뺏으면 될 것 아니야, 그거는! 공권력이면서.

교도관 : 이걸 변론 내용과 관계없지 않습니까?

노무현 : 왜 관계가 없습니까?

교도관 : 아 이게 국민들에게 드리는 글이 어떻게 관계가 있습니까?

노무현 : 그런 형식일 뿐이지, 나는 다음 변론에 이와 같은 이 시기에, 이와 같은 심정을 나는 변론의 자료로 삼을랍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문익환 : ‘모든 문제의 해결은 궁극적으로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교도관 : 녹음기는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익환 : 나갈 때 뺏으라고. ‘그러나 이 확신, 이 소신은 저만의 것이 아닙니다.’

교도관 : 국민에게 드리는 글

문익환 : ‘나라와 겨레를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의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새 봄, 이 통일이라는’

노무현 : 예?

문익환 : 통일이라는

노무현 : 예, ‘믿습니다.’ 다음에.

문익환 : 판을 바꿔서 ‘통일이라는 민족 최대의 과제를’

교도관 : 의원님, 녹음기를 좀 꺼주십시오. 제가 끄겠습니다, 그러면. 좀 봐주십시오.

노무현 : 잠시 함 보십시오. 여기 한번 알아보십시오. 잠시 멈춰.

(녹음 끝)

